



곽태휘

# “새 우승컵 우리 품에”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축구를 보여 주겠다.” FA컵 2연패의 위용을 자랑하는 전남 드래곤즈가 8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제철 대비’를 시작으로 9개월 간의 2008시즌 대장정에 들어간다. 오는 12일에는 2008 AFC 챔피언스리그 G조 1차전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와의 대결을 위해 호주 원정을 나선다.

이후 16일 인천 원정경기에 이어 김바 오사카·대전과 19, 30일 홈경기가 잡혀있다. 출발부터 강행군이다.

전남은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진출,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를 1차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리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박항서 감독이 사령탑에 오른지 이제 겨우 3달째. 자신이 강조하는 ‘빠른 축구’로 팀컬러를 바꾸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지난 3일 K-리그 미디어 데이에 참석했던 박 감독은 “부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부족했지만, 기동성을 살려 짜임새 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아직 자신의 색을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박 감독은 스스로가 밝힌 해결책처럼 기동성을 앞세워 조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 ■ K-리그 전남 전력

### ‘골넣는 수비수’ 곽태휘 상승세

### 용병 산드로·시몬 골잡이 선언

### ‘용광로 축구’ 보여주겠다 결의

탄탄한 수비력에 비해 무게가 떨어지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골잡이 고기구가 왼쪽 허벅지 미세 근육 부상을 입어 뻘뻘한 3월 일정을 소화해 낼지 장담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허정무호에 승선했던 미드필더 김치우, 수문장 염동균까지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경남 FC에서 영입한 미드필더 정경호도 피로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 시즌 초반 전력누수가 불가피하다.

고기구의 공백은 브라질 용병 3인방 산드로, 시몬, 슈바의 발끝에 달렸다. ‘골넣는 수비수’ 곽태휘의 약진은 천군만마다. 뒤늦게 태극마크를 단 곽태휘는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멋진 헤딩골을 선보인 뒤,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도 중국의 골문을 열어 A매치 2연속 골을 터트리며 ‘허정무호의 황태자’로 급부상했다. 팀의 주장까지 맡게된 곽태휘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기 위해 머리를 짚고 자라며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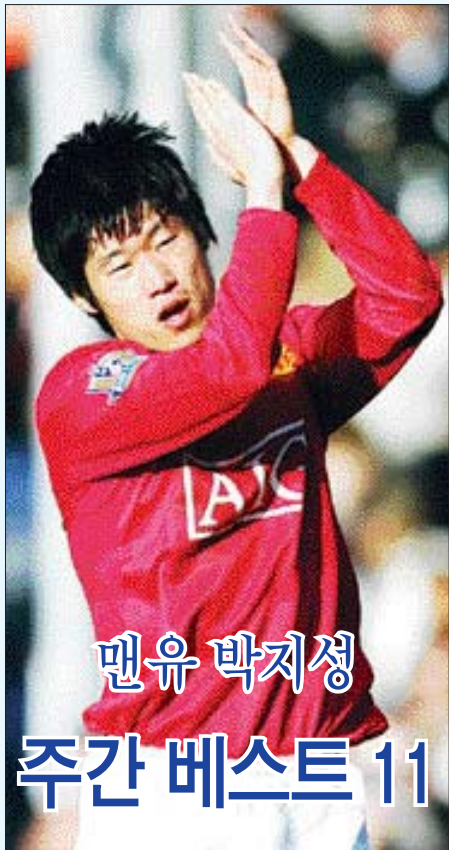
선수 영입으로 변화를 준 수비의 역할도 기대된다. 전북에 강인수를 내주고 정인환을 영입했고, 베테랑 수비수 이싸빅을 영입해 중앙수비를 한층 강화했다.

전남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축구’를 다짐하며, 2008시즌 광양 흥구장을 노란색 물결로 물들이는 꿈을 꾸고 있다. 원정 3경기 포함, 5경기의 강행군에 예정된 ‘시련의 3월’이 전남의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진출과 FA 3연패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어떤 선수가 주전들의 공백 속에 ‘깜짝 스타’로 이름을 올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몬



맨유 박지성  
주간 베스트 11

### 영국 언론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첫 골을 터트린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영국 언론이 선정한 주간 베스트11에 뽑혔다.

박지성은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4일(이하 한국시각) 발표한 2007-2008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주간 베스트11에 오른쪽 미드필더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박지성은 지난 2일 풀럼과 원정경기(3-0승)에서 전반 44분 폴 스콜스의 크로스를 깨끗한 헤딩으로 꽂아넣어 이번 시즌 첫 골을 뽑았다. 박지성은 4-4-2 포메이션의 주간 베스트11에서 미드필더 부문에 포함됐다.

미카엘 포르셀(버밍엄 시티)과 아예그베니 야쿠부(에버턴)가 투톱으로 뽑혔고, 미드필더는 박지성을 비롯해 라이언 바벨(리버풀), 팀 카이힐(에버턴), 폴 스콜스(맨유)가 한 자리의 쾌했다.

수비수로는 파비오 아우렐리오, 사미 히피야(이상 리버풀), 리처드 던, 네뎀 오누오하(이상 맨체스터 시티)가, 골키퍼는 브래드 프리델(블랙번)이 선정됐다.

텔레그래프는 또 박지성이 120차례 패스를 해 99번을 성공했고, 태클은 15차례 시도해 12번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패스와 태클 성공률이 모두 80%를 넘었다.



수비벽을 뚫어라

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도로공사-현대건설전에서 도로공사 한송이(왼쪽)가 현대건설 양효진(14번), 한수지(5) 등의 수비벽 위로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도로공사가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하루에 홀인원 3개

○1팀 동반자 두 명이 한 홀에서 잇따라 홀인원을 기록해 화제다.

주인공은 살인택(52)씨와 문광식(47)씨. 이들은 지난 2일 파인힐스CC(대표이사 김현수) 힐스코스 3번홀(파3·130m)에서 살인택씨가 캐러웨이 8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3차례 바운드 된 뒤 홀컵으로 빨려들어가 첫번째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어 문광식씨는 인프레스 7번 아이언으로 티샷 한 공이 두 번 바운드 된 뒤 홀컵에 들어가는 진기

## 한 홀서 동반자 2명 나란히 홀인원 진기록 함평다이내스티 ‘나비엑스포’ 지원 이벤트

록을 연출했다.

또 이날 파인코스 5번홀(파3·121m)에서도 김재곤씨가 홀인원을 기록해 파인힐스CC 개장 이래 처음으로 하룻동안 3개의 홀인원이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 9홀 추가펜 와인 1병 증정

○함평다이내스티CC(대표 이준희)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이벤트 지

원행사를 실시한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올 한해동안 함평군민에게 주중 준회원 대우(그린피 8만원)를, 행사기간(4월 17~5월말) 엑스포 입장권을 지참하는 내장객에게는 주중과 주말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함평다이내스티CC는 3월 한달동안 18홀을 마치고 9홀을 추가 할 경우 1인당 와인 1병을 증정한다. 또라운드를 마친 모든 내장객에게는 건강에 좋은 야채스틱을 무료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남북 월드컵 축구 예선 개최지 오늘 결정될듯

2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축구 예선 남북 맞대결이 어디에서 개최될지 늦어도 5일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의 중재 요청을 받은 국제축구연맹(FIFA)은 북한과 접촉을 했고 조만간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 대한축구협회 홍보국장은 4일 “이 경기가 예정대로 평양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협회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제3국 개최가 가장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FIFA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FIFA가 오늘, 내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지존’ 신지애 황고 모델 데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광고 모델로 데뷔한다.

김중력 향상기 ‘엠씨스퀘어’를 생산, 판매하는 (주)대양이앤씨는 신지애를 ‘엠씨스퀘어’ 전속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4일 밝혔다.

(주)대양이앤씨는 신지애가 경기장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과시하는 비결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엠씨스퀘어’를 사용한 덕이라고 말한 사실을 주목, 광고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지애는 지난해 (주)대양이앤씨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 엠씨스퀘어에 크라운 CC 여자오픈에서 7타차 역전승을 일궈내기도 했다. (주)대양이앤씨는 전속 계약금은 국내 최고 스포츠 스타에 걸맞은 수준이라고만 밝혔다.

골프·랜드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설비	골프장 시설비
관주 3,500	총임대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보양 2,100

상담문의 (062)351-0095